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6. 24.(목) 14:00			
사 업 명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도전숙 복합개발사업(신규)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의결번호	(굴토)2021-9-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설계지반강도정수 산정 시 모래층에 점착력 5kPa을 부여하고 점토에 내부마찰 각 10°를 부여한 것은 단기거동에 해당하는 비배수 전단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모래층에는 점착력을 삭제하고 점토층에는 내부마찰각을 삭제 바람.
 - 설계지반강도정수 산정에 있어 매립층 및 퇴적토층의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산 정근거를 제시하기 바람(점성토의 경우는 점착력만 고려, 사질토의 경우 내부 마찰각만 고려).
- 지하수위가 낮게 조사되었다 하더라도 그라우팅공법은 흙막이 벽체의 단점을 보강하고 차수 및 지반보강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인 바, 흙막이 설계에 적용된 L.W 그라우팅은 신뢰성이 저하되는 공법이므로 신뢰성 있고 내구성이 있는 그라우팅 공법으로 재검토하여 설계에 적용 바람.
- 보고자료 p.13 최대굴착고가 기계실 기준으로 19.96m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 하였으나, 지지층 조정(치환 등) 등의 사유로 굴착고 20m 상회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재심의 대상이 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바람.
- 지반조사 성과분석의 적정성(보고자료 p.23 지반조사 위치 BH-11 및 BH-1 상하측 지반조사 개소의 부재로 전반적인 지층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함.

○ 지층분석의 적정성 검토 필요

구 분		시 추 주 상 도		비 고	
		BH - 11	BH - 14	BH - 17	미끄
조 시	표 고	EL(+) 9.42m	EL(+) 9.45m	EL(+) 9.63m	
	매 립 층	GL(-) 2.5m, D=2.5m	GL(-) 0.5m, D=0.5m	GL(-) 4.5m, D=4.5m	
지 층	퇴적점토	GL(-) 5.0m, D=2.5m	GL(-) 4.3m, D=3.8m	GL(-) 8.0m, D=3.5m	
층 서	퇴적모래	-	GL(-) 8.0m, D=3.7m	-	
	풍 화 토	GL(-) 5.0m 이하	GL(-) 8.0m 이하	GL(-) 8.0m 이하	

- 전체구간 대표하여 인접한 상기 3개 시추공의 표준관입시험 N치를 표기한 지층단면도를 작성하여 지층을 구분한 근거를 제시 바람.
- 풍화토의 N치가 4 ~ 7 정도로 매우 느슨한 위치 퇴적토인지 재확인하고, 풍화토 분 류근거 제시 바람.
- 가장 근간인 되는 지층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바, 지층분류에 대하여 전체 시추공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 지하수위의 적정성 검토 필요

 구 분	시 추 주 상 도		<u></u> 비고
	마곡공공형 : 당현장	마곡마이스 : 인근	
지 반 조 사 시 기	2020년 02월	2020년 02월	
서울마곡(충적) 지점	최저수위 기준 EL(-) 0.58m		
조 사 수 위	GL(-) 16.2 ~ 21.4m	GL(-) 15.0 ~ 16.5m	
설 계 수 위	GL(-) 13.3 ~ 18.5m	GL(-) 11.5m	

- 지반조사보고서 p.34 일부개소를 제외하고 인근 현장과 초기 지하수위가 비슷함에도 7일 경과 지하수위 최대 약 3.0m(BH-7 등 기준) 하강한 것으로 표기됨. 해당지층 표준관입시험 N치가 50의 풍화토임을 고려시 제시한 지하수위 저하가 가능한 사항인지 제시하기 바람.
- 인근 현장 공내지하수위 퇴적층 직하부 풍화토층 분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지하수위 와 거의 유사, 당 현장의 지하수위 풍화토층 하단부에 위치 타당하지 재검토 하고, 분석기점인 서울마곡(충적) 지점과의 재검토가 필요함(인근 현장의 경우 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 위치).
- 보고자료 p.12 지하안전영향평가 3. 지반및지질현황 1)에도 인근 사업지구와 7~8m 정도의 지하수위 차이로 "설계 지하수위 재산정 및 안정검토 재수행"의견이 있음. 또한 상기 내용 고려시 답변 내용의 타당성이 결여됨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3 기초지지력 검토에 있어서 풍화토 지반에서 작용하중 600kN/m² 지지력 확보가 가능한지 재검토하기 바람.
 - 일반적으로 풍화암 지반에서 허용하중을 $600 \text{kN}/m^2$ 정도로 산정하고 있음. 지하수위 적정성 검토 후 수위가 상승시 풍화토 지반에서 허용지지력이 작용하중을 만족할 수 있는 지 재검토.

- 지지력 부족시 말뚝기초로 변경 또는 치환공법 적용시 굴착고가 20m를 상회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재상정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 제시 바람.
- 과도한 허용지지력을 제시한 바, 충분한 개소의 평판재하시험 계획(수량 및 위치)을 반영 하여 도면화 하여 제시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6 지반강도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굴착측 대부분이 매립도 / 퇴적도 / 풍화토 (N(20) 정도의 지반임에도 해당 지층의 현장시험이 전무하며, 제시한 강도정수 부적절함.
 - 표준관입시험 N치를 근거로 점토층 및 모래층의 대폭적인 강도 하향이 필요함.
 - 특히 풍화토의 경우 표준관입시험 N(15~20 인 지층을 별도로 구분하여 내부마찰각이 15 이내에 분포하도록 재산정하여, 전단면에 대한 안정검토를 재수행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8 차수공법 LW공법의 경우 용탈현상 등 단점이 있으므로, 시공시 GEL TIME 조절 및 주입후 용탈이 발생치 않는 활성실리카재 및 자가치유재 등을 사용하는 공법 등으로 재검토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구조계산서에서 기초의 지지력이 600 〈 602.8kN/㎡일 때 OK인 것은 맞으나 풍화토의 변형계수를 계략적으로 가정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 바람.
- 구조계산서에서 침하량이 24.5 〈 25mm보다 작아서 안전하다고 판정했으나, 소숫점 자리를 없애면 동일한 값이어서 불안정하므로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바람.
- 직접기초가 모두 풍화토에 위치하는데 EL.-4.5m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반이 연약하고 EL.-9.8m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고하므로 두 위치의 지반 변형계수를 구분하여 적용 바람.
- 보타닉파크프라자 건물이 지하 7층으로 인접해 있어서 인접 지역에는 사이로 토압 만 발생하고 기타 지역은 전 토압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토압의 불균형이 심하 게 발생하므로 코너 스트릿 설치를 최소화 바람.
- 어스앵커의 경우 지반조건에 따라 인장력이 변화할 수 있는 바, 현재 설계에 적용된 횟수는 매우 부족하므로 설계에서 설정한 대표단면에 대하여 각각 현장시험시공 및 인발 및 인장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인장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고 보고서로 제출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본시공에 적용 바람(도면노트 명기 및 시행 요망).
- 버팀지지구간과 어스앵커지지구간은 중첩시켜 지지시스템 차이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도면을 수정 바람.
- 보고자료 p.40 단면 B의 경우 흙막이설계도면 p.9 굴착계획평면도(2)와 어스앵커 보강 범위가 상이 하므로 수정하기 바람.

- 보고자료 p.40 단면 B 좌우측 사보강 구간의 경우 흙막이설계도면 p.17 굴착계획전개도(2) 가급적 인근 어스앵커 구간과 굴착단계를 동일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단수를 어스앵커 구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바람.
- 보고자료 p.41, 44, 48, 51, 54, 57, 63 공통
 - 지층조건, 지하수위조건 및 지반강도정수 재산정 후 재검토하기 바람.
 - 해체단계 검토시 모든 단면 동일. 흙막이설계 보고서 p.305~306 10) 시공 10단계 까지의 해석 적절함. 11단계에서 7번 앵커 해체시 지하 4벽 일부가 없는 단면이 추가되어야 함. 이후 해체단계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반영하여 단면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함.
 - 벽체 캔틸리버 안정성 해석을 추가하기 바람.
- 구조계산이 신강재 조건이므로 자재 반입시 반드시 신강재 기준으로 자재 반입토록 시방서 에 명기하기 바람.
- 굴착계획 전개도(1)~(9)(설계도면 C-013~C-021)에 CIP 및 H-Pile 길이를 표기하기 바람.
- CIP 벽체의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가설 흙막이공사 시방서에 따라 CIP 상세도에 안내벽(Guide wall 또는 Guide Frame) 상세 추가하기 바람.
- CIP 상세도에 흙막이벽체(CIP) 길이와 일치하는 철근 가공 상세도, 사용철근 직경에 따른 겹침이음길이 및 이음갯수 등을 반영한 철근수량 집계표를 반영하기 바람.
- Cap Beam에 대한 철근배치 단면상세도, 가공상세도 및 철근수량 집계표를 추가하기 바람.
- 시공전 보강 Raker, 복공구간과 코너스트럿구간에 대한 강재 치수, 제원 및 수량이 산출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바람.
- P.40 현장 주출입 예상 구간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복공계획 필요.
- P.71 보강 Raker 해체 시기 및 지하벽체 높이 등에 따른 제거식 앵커 해체시 캔틸레버구간의 해석과 Raker 설치 간격 표기 바람(시공순서도 설계도서에 명기시 실제 시공순서를 반영 바람).
- Raker 안전성 검토 계산결과를 제시 바람(현재 p.71 step5 그림상으로는 불안 정하다고 판단됨).
- 흙막이 띠장 3m 이상 겹침 보완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 평면도상에 지지공법 변경 구간인 I-3과 I-4 사이와 I-6과 I-7 사이에 지중 경사계를 추가 설치 바람(지하수위계가 항상 경사계와 일치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W2, W4, W6는 삭제).
- 벽체 변위 관리 기준 중 47.275mm는 최종 굴착 시의 허용변위이므로 단계별 굴착심도에 해당하는 허용변위를 제시 바람.

- 8단 어스앵커는 하단 굴착 시 상단의 어스앵커에서 긴장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자동 토압계를 설치하여 상시 관리 바람.
- 보고자료 p.75 CIP벽체 천공 및 장비운용에 따른 진동/소음 계측을 추가하여 민원에 대처하기 바람.
- 가장 인접한 보타닉파크플라자의 경우 진동/소음 및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 추가 배치 필요함.
- 지하수위계의 경우 수위변화가 크므로 4방향 적정개소의 경우 자동화 계측을 시행하기 바람.
- O Raker 계측 표기 바람.

□ 기타분야

○ 직접기초의 지지력 및 침하량 계산에 적용한 기초폭 B=4.5m에 대한 적용 근거를 제시 바람(전면기초의 경우 기둥중심간 거리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끝.

5/5

2021. 6.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